

들어가기 교회에 십자가, 부활, 승천과 같은 주제가 중요하지만, 이 가르침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자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승천을 말할 때에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 어디를 향해 진전시킬 것인지 성도를 이끄는 이정표의 역할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증인으로 서야 합니다.

둘러보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는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하여 왜 하나님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조건절로 세우셨을까요?(행1:8) 물론 성령님이 오셔서 권능을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일을 이루어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 권능 받는 것을 강조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헌금할 때 성도의 가장 중요한 태도로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 것을 권합니다.(고후9:7)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스럽고 벅찬 초대가 있을 때에는 기쁨과 희열로 순종해야 합니다.

Q, 우리가 증인으로 서기 위하여 어떤 것이 조건절로 등장합니까? 그리고 그 조건절의 진의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린 곳은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행1:13)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승천하시던 현장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합니다.(눅24:53) 누가복음에서의 성전에서 사도행전에서 다락방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성전은 유대종교의 본산으로서, 예수님의 준엄한 질책의 대상이었습니다. 성전에서부터 모든 더러움과 악함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가리켜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요2:19) 사복음서는 성전시대를 조명하였지만, 사도행전에는 다락방으로부터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합니다. 교회는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 120명이 모인 성도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이 후 오순절에 성령이 오심으로 공식적으로 교회가 창립됩니다.

이 새로운 교회 공동체는 어떤 가치로 시작되었을까요? 본문 13절에서 공동체 구성원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사역의 질서를 따라 기술합니다. 사복음서가 나이, 가족 등의 순서를 따라 기술한 것과 다릅니다. 교회는 세상의 직분은 놓고, 십자가의 공로가 필요한 죄인들이 만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세속적 가치가 교회 안에서 용인될 때 교회는 망조가 깃듭니다. 영적인 공동체를 위한 새로운 질서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용서와 긍휼에 기초하여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새로운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를 “형제들아”라고 부릅니다.(1:16) 교회 안의 직분자는 섬김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 모인 제자들은 모두 120명이었습니다.(1:15) 120이라는 수는 유대인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할 때 최소한의 기초단위입니다. 120명이 모였다는 것은 성전 중심의 유대교가 끝

나고 완전히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탄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Q, 제자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린 곳이 다락방인 점, 공동체 구성원의 이름이 사역에 따라 진술된 점, 120명이라는 숫자의 의미 등을 고려할 때, 사도행전은 신약의 교회가 어떤 공동체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오기 제자들은 더불어 기도하였습니다.(1:14) “더불어” 기도했다는 것은 같은 신앙고백으로 모였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되심을 중심으로 하여 고백을 함께한 사람들의 결성체입니다. 세상의 경영방식, 수의 논리가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생명의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신약의 새로운 교회는 기도로 시작하였습니다. 기도는 ‘우리 힘으로는 이 땅에서 만들어 낼 것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지금 당장 할 일은 기도 밖에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힘으로 생산할 것이 없기에, 교회는 기도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Q, 신약의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기도로 시작하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또한 무엇일지 고백해 봅시다,

▶ 교회로 부름받은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의 삶에 세상의 가치기준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기준으로 살면서 누린 은혜를 나누어 봅시다, 새로운 가치 기준으로 살다가 겪은 고난도 함께 고백해 봅시다,

▶ 내일 동해선교가 시작됩니다, 선교에 대한 기도제목을 서로 나누어봅시다, 이번 여름에 어떻게 선교에 임할지에 대해 결단하며 서로 발표합시다,

기도 : ♫ 우리 함께 기도해

삼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성령충만함을 위해

담임목사님의 강단사역과 말씀의 사역을 위해

동해선교의 모든 일정과 선교의 열매와 안전, 영육간에 강건함 위해

이번 여름 선교대원의 채우심과 모든 사역을 위해

영아부부터 시작된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